

담양군, '손기정 일장기 삭제' 고하 송진우 특강 개최

입력 2024-06-04 08:41:14 수정 2024-06-04 08:57:44

뉴스광장(광주)



담양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담양 출신 독립운동가인 고하 송진우 선생에 대한 강연을 내일(5일) 담양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.

1890년 담양에서 태어난 송진우 선생은 1919년에는 3·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 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, 1936년 동아일보에 근무하면서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일제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



최정민 기자 cjmin@kbs.co.kr
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